

국내 학술지의 OA 전환과 상생형 비즈니스 모델개발(김완종) 토론문

김병준(지식공유연대)

발표 자료를 보면서 OA 전환이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마침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KADH)의 새로운 OA학술지 창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토론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KADH의 새로운 학술지가 추구하는 방향은 OA와 기계가독형 서지 데이터 관리를 통한 편집 노동의 최소화입니다.

1. 적극적인 Online 출판 시스템과 기계가독형 서지 데이터

현재 학술지 유통이 점차 온라인화 되면서 연구자들은 인쇄된 학술지를 점차 보지 않고 있습니다. OA의 취지를 더욱 더 살리려면 논문을 완전히 웹 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게 하고 (PDF 파일은 동시 제공), 연구자들이 투고한 논문 파일을 바로 XML 형태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문 원고 작성 단계부터 투고자들이 표준화된 샘플 파일을 기초로 원고를 작성하고, 참고문헌 양식도 서지 관리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표준화된 양식 위에서 작성하는 등의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이 전과정을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바로 KISTI의 ACOMS+였습니다. 투고, 심사, 출판 전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투고자가 연구 재현성을 위해 원고 이외의 연구 데이터 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림 1 ACOMS+ 시스템 기능

2. 감사 노동의 최소화와 셀프 아카이빙

대부분의 연구자는 논문의 투고자인 동시에 자신의 속한 학회의 간사이거나 위원입니다. 즉 논문의 투고자인 동시에 심사자이자 편집자인 것이죠. 때문에 연구자 스스로 학술지 편집에 들어가는 노동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한국 학계, 특히 인문사회 학술계에도 셀프 아카이빙(preprint)이 보편화 된다면 편집 간사의 노동이 줄어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자연과학이나 공학계 일부에서는 preprint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자신의 preprint 논문을 XML 형태로 기계가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한다면, 더욱 손쉽게 논문 투고가 가능하며 게재 과정에서도 편집 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환경에 맞는 학술지 시스템 도입

학술계에 OA만큼 중요한 화두는 온라인에 환경에서 이뤄지는 학술 활동에 맞는 학술지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식의 축적과 발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는 디지털화된 학술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OA가 더 확산되려면 논문 출판의 A부터 Z까지 모두 디지털 환경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KISTI에서 제공하는 ACOMS+를 비롯한 여러 디지털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